

새 책

▶이파브르의 탐구생활(이파람 지음)=서울 한복판에서 프리랜서로 살던 저자는 친환경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했다. 해와 함께 일어나 농사짓고 해가 기울면 작업하는 반농반작의 농부라는 저자는 산나물과 들꽃, 토종 씨앗을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할머니들을 통해 자연과의 공생과 연대에 대해서 생각한다. 갈대를 이용해 1년까지 쓸 수 있는 빨대를 만드는 방법 등 생태적인 지혜의 보물 창고라 할 만하다. 열매하나. 1만5000원.



▶송진(에스 리일 지음, 이승재 옮김)=남다른 가족사를 배경으로 외딴 섬에서 성장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다. 1인칭 화법이 주를 이루지만 때론 전지적 화법이 교차되면서 섬에서 벌어진 그로테스크한 일들을 전해준다. “어둡고 악마적인 동시에 사랑스럽고 생명력이 가득한 아름다운 소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최고의 서스펜스/범죄소설에 수여하는 클레스크리상을 받았다. 은쟁나무. 1만4000원.



▶노예국가(힐레어 벨록 지음, 성귀수 옮김)=저자는 임금노동자가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대신, 소수 자산가의 이득을 위해 실정법상 부과된 노동에 종속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논리적 숙명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안정된 사회를 ‘노예국가’로 명명한다. 100여 년 전의 제언을 통해 노예제 사회로 이행 중인 현대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루아크. 1만3000원.



▶정치의 약속(하승우 지음)=저자는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한걸음씩 걸어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나키스트 정치학자였다가 2년여 녹색당에서 당직자로 일하고 다시 연구활동가의 자리로 돌아온 저자가 우리가 풀어야 할 정치의 과제들을 짚어냈다. 포도밭. 1만4000원.



▶사쿠라리다(우치다 다쓰루 외 지음, 정선태 옮김)=행동하는 정치학자 사라이 사토시는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 사회를 보면서 일본의 전후 시대 마감을 예언했다. 일본의 지성 우치다 다쓰루는 아베 정권이 향하고 있는 내셔널리즘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다. 일본의 사상가와 젊은 논객의 대담집이다. 우주소년. 1만5000원.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이임숙 지음)=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한 대화법이다. 저자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과의 특별한 5단계 대화법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여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창비. 1만5000원.



현대 의학과 건강 열풍의 민낯 드러내다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건강의 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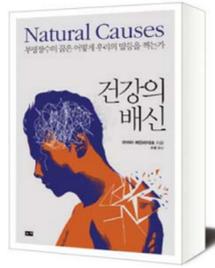
무병장수와 영생의 꿈 과잉진단이라는 유행병

뉴욕타임스가 “답에는 말할 것도 없고 프렌치프라이도 손대지 않는” 운동광이라고 소개한 여성 전용 헬스클럽 소유주인 루실 로버츠는 59세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젊을 때 반점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치료법·명상 등을 시도하는 데 생애 후반을 바친 제리 루빈은 56세 때 월서가를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2주 후에 사망했다. 건강 생활 잡지 ‘리벤션’의 창업자이자 유기농 식품의 초기 지지자였던 제프 로데일은 “100세까지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지만 72세에 TV 쇼 프로그램을 녹화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베스트셀러 ‘달리기에 관한 모든 것’의 저자 짐 피스는 매일 최소 10마일씩 달리고 식단을 제한하면 심장 질환을 이길 것이라 믿었지만 52

세 때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베스트셀러 ‘더 젊어질 내년’의 공동 저자인 헨리 로지는 58세 때 심장암으로 사망했다.

‘긍정의 배신’, ‘노동의 배신’, ‘희망의 배신’을 통해 궁정 이데올로기와 저임 노동, 화이트칼라 몰락의 실태를 고발한 저자가 이번에는 ‘건강의 배신’을 통해 현대 의학의 장밋빛 약속과 건강 열풍의 민낯을 드러내 신랄히 비판한다. 앞서 저자가 언급한 유명인사들의 비교적 이른 죽음은 “대부분의 질병이 흡연, 폭음, 난폭 운전, 난잡한 성생활, 흡연 등 여러 나쁜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주류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그 주류들은 바로 헬스 케어와 웰니스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이들이고, 의료산업계와 보험회사들이다.

책을 의료 부정 서적이라고 폄하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포 생물학을 공부하고 세포면역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가 제시



하는 사례와 논거는 독자들을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과잉 의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한국의 사례도 언급한다. “21세기 초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받은 갑상선암 수술의 약 70~80%는 불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들이 아주 성실하게 갑상선 검사를 하는 한국의 경우 이 숫자는 90%까지 올라간다.” 곳곳에 풍자와 유희, 유머 코드를 심어서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키. 1만6000원.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200년 세월 넘어 오늘에 닿은 사랑의 시

김용성 번역 '존 키츠 러브레터와 시'

“내 종교는 사랑이야. 난 사랑을 위해, 너를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난 사랑을 믿어. 내 유일한 교리는 바로 너야. 저항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나를 미치게 하지. 너한테 하나 있을 때도 막상 너를 보지만 하면 눈 녹듯 모든 게 용서가 돼.”

19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존 키츠. 1819년 10월 13일, 그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이런 구절이 담긴 편지를 띄운다. 그의 연인은 페니 브론. 어머니와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핵과 마주한 시인은 그해 가을부터 이웃에 살던 페니 브론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편지에 그 마음을 담는다.

‘러브레터의 전형’으로 불리는 그의 편지에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삶에 대한 성찰, 살아가는 아픔과 성숙 같은 감정이 배어있다. 사랑

에 빠져 행복해지는 마음과 사랑을 잃을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마음도 동시에 읽힌다.

끝내 폐결핵으로 26세에 요절한 존 키츠의 러브레터와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기고 간 시편들을 시인이자 번역가인 제주출신 김용성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존 키츠 러브레터와 시’로 ‘한국시로 다시 쓰는 셰익스피어 소네트’, ‘에이즈 시선 첫사랑’에 이은 그의 세번째 번역 시집으로 ‘이름없는 시는 독자가 받아들이고 음미할 수 있는 시적 언어를 치열히 골라내며 번역했다. 번역시의 난해함을 원문에 떠넘기는 안전함을 택하기 보다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시로 읽힐 수 있도록 했다. 이예대해 윤선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안개와 감미로운 열매가 있는 계절/ 무르익게 해주는 해남의 절친한 벗’으로 시작되는 ‘가을에게’ 등을 예로 들며 ‘주체적인 번역시의 가능성을 여는 시도’라고 평했다. 역자는 과학적 용어나 딱딱한 한자어를 피하고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려 했고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적극 활용에 즐거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바른북스. 1만3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윤여일의 '광장이 되는 시간'



천막촌사람들이 제2공항을 중단하라며 제주도청 앞에서 백배를 하고 있다.

“참혹한 미래 만날 자신 없어 싸운다”



2018년 12월 19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사람이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제2공항 추진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다.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천막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의회, 제주교육청 등 ‘제주 공권력

의 중심 무대’인 제주도청 앞에 ‘천막촌’이 생겨났다.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윤여일씨도 동료들과 연구자공방 천막을 세우며 천막촌 사람이 되었다. 그 때가 2019년 1월이었다. 그가 ‘미래에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곳의 지금을 기록’한 ‘광장이 되는 시간’을 냈다. ‘천막촌의 목소리로 쓴 오십 편의 단장’이란 부제가 달린 책으로 한겨울에서 시작해 어느덧 여름을 맞으며 반년

간 천막촌 사람들 곁에서 경험하고 사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막촌은 지난 많은 운동을 앞에 두고 있으며, 그것들을 참고하고 계승한다. 과거의 운동은 우리에게 침전된 가능성이고 실천의 참조점이고 못 이룬 약속이다. 천막촌은 그 과거들을 여기저기서 불러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산출하고자 한다.”

저자는 천막촌이 제주에서 전례 없던 것이지만 고립되어 있지 않고,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멀게는 항쟁으로 소환하려는 제주4·3이 있고 가깝게는 강정이 있다. 천막촌은 여러 운동들을 이으며 그것들을 다시금 운동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천막촌은 새로운 마을이다. 단지 여러 개의 천막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전에 없던 마을을 살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이들,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이들이 새로운 공공 영역을 만들어내려 한다.

천막촌 사람들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고 여전히 운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닿고 싶은 나날을 앞당겨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천막촌은 미래를 선취하는 마을의 이름’이라고 적으며 그곳에서 만난 목소리들을 들려줬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길래, 우리는 검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참혹한 미래를 만날 자신이 없어 지금 여기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포도밭출판사. 1만5000원.

전선희기자

축수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김희자
(서귀포시지회 여성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5주년 기념 유공조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중부여성회
회장 고순란 외 회원일동

축수상
세계자유민주연맹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문종해 전동호
(해원영어조합법인 대표) (평화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세계자유민주연맹 봉사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정회 회원일동

취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강충룡
(正鄭公 16세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더 정진하여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제주도총회 회장 강원희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제주도청년회 회장 강영로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정랑공파중흥회 회장 강길현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정랑공파청년회 회장 강창균 외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이티브'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